

진실의힘 NEWSLETTER

[현장] 진실의 힘 123내란기록팀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시간

바오밥

귀한 세 달을 보냈습니다. 작업의 공적인 의미를 떠나서 자신에게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글로 정리하는 작업을 기자로 쪽 해왔는데도, 이번엔 남는 게 달랐습니다. 기회 주의적이지 않은 기록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매일 스스로를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었고, ‘123 시민’ 38명이 겪은 삶의 면면과 용기를 들으면서는 겸허함을 배웠습니다. ‘언젠간 끝날 이 시간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 퇴근 후 지하철에서 종종 생각했습니다.

123시민은 제가 인터뷰이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저장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뛰쳐나간 시민들입니다. 저는 지난 1월 중순 우연한 기회로 ‘진실의 힘 123내란기록팀’에 합류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로 나간 시민을 찾고 인터뷰해 그들의 기억과 삶을 기록하고자 꾸린 팀입니다. 자유가 박탈되고 군대가 시민에게 총을 드는 계엄하에 국회로 달려나갔던 행동이 그 자체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기록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군경에 맞선 집단적인 힘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의 기여로 만들어졌기에, 그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곧 민주주의의 기록이라는 의미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찾을까? 누가 응할까? 몇 명이나 응할까? 끝은 맺을 수 있을까?’ 백지상태였던 처음엔 걱정이 컸지만, 팀에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해가다 보니 점과 선이 그려졌고 어느 시점에 청사진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언론보도, 각종 SNS, 사돈의 8촌까지 뒤져 1차 명단을 만들고 인터뷰 과정을 설계하고 인터뷰지를 완성한 후, 1월 23일 첫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2월 12일, 기록팀의 내란기록 작업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면서 123시민을 더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그 결과 300명에 가까운 시민을 찾았고, 현재 기록팀은 300명의 구술기록을 남기는 것을 1차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한 분을 제외하면 팀에 총 11명의 활동가가 있습니다. 2명은 운영, 4명은 사진, 5명은 인터뷰를 맡고 있습니다. 매일 적게는 1명, 많게는 5명의 시민이 인터뷰를 위해 사무실을 찾습니다. ‘당신은 왜 그날 그곳에 가셨나요?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겪으셨나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날 국회에 갈 수 있었나요?’ 이런 질문들을 건네면서 2~3시간가량의 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124분의 구술기록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두어 달 동안 38분의 123시민을 만났습니다. 38권의 책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일의 기억과 결의, 국회에서 했던 행동들, 그의 가치관, 그리고 삶의 여정과 굴곡까지, 각양각색의 드라마를 가진 동료시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부채감입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구한 세상인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말하며 눈물 흘린 20대 청년도,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 말하며 목이 메인 5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는 길이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남았던 인터뷰이의 말들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저는 살 만큼 살았어요. 후회도 없어요. 죽어야 하면 제가 죽어야죠”라고 했던 A씨, 아들이 눈물로 만류하는데도 다른 부모가 유

죽이 되게 할 순 없다며 서울로 갔던 10·29이태원참사 유족, 그리고 “엄마,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마워”라는 말에 아들을 꼭 안아주신 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지켜온 우리의 자유와 권리인데, 그들에게 절대 질 수 없고 지고 싶지 않았다”는 B씨, 계엄 이후엔 모든 투쟁 현장에서 싸우는 이들이 절대 남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C씨, 그래서 생전 집회 한 번 나가본 적 없지만 계엄 이후 ‘말벌’이 된 C씨, 같은 이유로 비상행동 집회에 자원봉사만 20번 넘게 나갔던 회사원 D씨.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가장 많이 남은 생각은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입니다. 많은 느낌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이들 말 저변에 깔린 따뜻함,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옆집에 사는 것 같은 익숙한 이들의 선의, 종종 마주했던 뜨거운 눈물, 너의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서로가 서로의 삶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연대감, 그리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자신의 깊은 얘기를 풀어주실까’하는 개인적인 감사함까지, 다양한 기억들이 이리저리 얽히다 결국 더 나은 삶에 대한 생각으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을 어떤 결과물로 남길지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기록집을 내기로 정했지만, 어떤 출판물로 공개할지,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이야기를 담을지, 그 책으로 어떤 메시지를 사회에 남기고 싶은지 등을 남은 시간 동안 더 논의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기자로 일을 하게 되면서 4월 초 아쉽게 진실의 힘 생활을 끝냈지만, 쉬는 시간 틈틈이 인터뷰 작업은 이어가려고 합니다. 300분의 귀한 시간, 귀한 얘기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팀도 귀한 결과물을 낼 수 있길 바라면서, 끝인사는 진실의 힘, 그리고 123내란기록팀 파이팅!!

[회원소개]

나라도 나를 챙겨봐야겠다

영만스님_구례 보림사

후원회원 영만스님을 소개합니다. 스님은 현재 구례 보림사에 계시는데 조계종의 ‘은퇴자 출가’ 제도를 통해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 전부터 진실의 힘을 후원했는데 여전히 진실의 힘 활동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조계종의 ‘은퇴자 출가’제도를 통해 출가했다고 하셨습니다.

2017년, 조계종에서 처음으로 ‘은퇴자 출가’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은퇴자가 행자등록을 할 때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과 건강보험, 연금수령 예정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첫해에 전국에서 세 명이 출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수행하고 지난해 통도사에서 수계를 받았습니다.

정년을 하고 1년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년 후에도 보통은 30년을 더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하나,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꾸리고 미래를 준비했지만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특별한 일 없이 놀거나 산에 가거나 아니면 용돈 버는 소일거리……. 그런 것들을 하죠. 결국 힘들어지면 못 할 일들이라 고민 끝에 ‘수행’을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얼마나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 나라도 나를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흔쾌히 동의해줬습니다. 출가하려면 독신이어야 해서 이혼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나이 들어 출가하니 수계를 받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연에서 수행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지내는 것이 부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선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이지요. 불교에서 수계는 진중한 의식이고, 스님들 사이에 지켜야 할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볼 수가 없습니다. 수계 받는 날 친구들 여럿이 절로 모였는데 실제 수계식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절 마당에서 기다리다 제가 나오니 모두들 박수 치고 기뻐해줬습니다. 아마 수계식이 끝나고 그렇게 소란스러운 광경은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출가를 하니 오래 산속에서 수행한 스님들에 비해서 제가 사회의 시선으로 종단을 바라보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불교계가 좀 더 세상과 발을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장차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림사는 변화가에 있고 화엄사 위탁 시설을 운영하는 스님들이 쉬는 공간으로 기능한 면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가 고령화되고 젊은 인구가 없어서 절을 찾는 신도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구례 시내의 신자들은 오래 다닌 절이 있어 보림사에서 수행생활을 하지 않기도 하고요. 섬진강이 보이는 곳에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쉬는 수행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장차 목표입니다. 물론 신자들도 수행에 이용할 수 있어야죠. 승속이 함께 어울려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세속에 있을 때도 천주교 교구 산하의 시각장애인시설을 운영했습니다.

복지시설을 오래 운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을 꾸려 나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살아야 하겠는가. 이왕 태어났으니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지원금 없이 천주교 신자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두 개의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다가 출가하면서 천주교 교구에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스님은 3개월에 한 번씩 동국대 병원에서 진료받으러 서울에 오는데 오늘이 마침 병원에 온 날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사무실 옆 덕수궁도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 강제징집, 5월 광주, 강제수용, 복학, 국전 입선... 출가한 신분이라 세속에서 있었던 사연을 다 공개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승속이 함께 어울리는 불교계를 고민하는 영만 스님을 응원합니다.

[후기]

『장애, 시설을 나서다』 북토크

유승하_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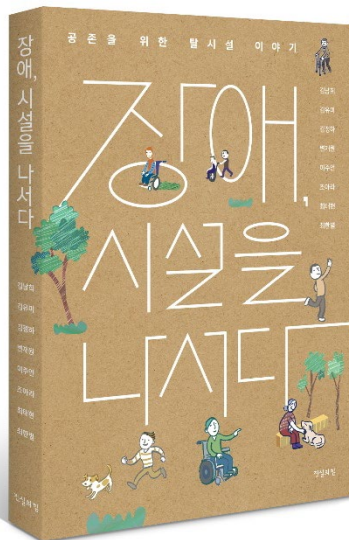
『장애, 시설을 나서다』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저자 5명이 패널로 참가해 무슨 이유로 ‘탈시설’을 주제로 책을 쓰고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얘기하고, 실제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책 사이 사이 그림을 그려 넣은 유승하 화가가 최근에 경험한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승하 화가는 『엄마 냄새 참 좋다』 『날마다 도서관을 상상해』를 펴냈고, 『십시일反』 『사이시웃』 『어깨동무』 『섬과 섬을 잇다』 『내가 살던 용산』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등 인권과 세상에 대한 그림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특히 말을 하라고 할 때는 늘 도망 다녔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주시네요.

저희 어머니가 2년을 살 수 있겠다는 선고를 받고 8년을 사시면서 가족들은 존엄사를 고민했었습니다. 이 책의 작업을 맡을 무렵 제가 몸이 안 좋아 지면서 결국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어요. 가장 좋은 시설이라고 해서 선택했는데 걸보기에는 보호자에게 잘하고 좋은 것 같았는데

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무렵이 됐을 때 뭐랄까 폐기처분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좋은 시설이란 말을 듣고 골라서 찾아간 병원이고 간병인에게도 잘했는데 어머니의 생을 마무리 하는 무렵에 들었던 말들, 당했던 일들, 상처들을 생각하면…… 그 큰 요양병원에 임종실이 하나 없이 빨리 좀 치워 달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것 때문에 서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귀중한 마지막을 위해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당장 오늘, 막상 내 일이 되고 나니 ‘나는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시설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 드는 서러운 마음들은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 인권에 관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됐는데 저는 이 책을 공부하듯이 읽었고 아직도 질문이 많습니다. 사는게 늘 질문의 연속인 것 같아요. 아파도, 장애가 있어도,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바라구요. 덕분에 좋은 자리에 와서 많이 배워갑니다.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동네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장애, 시설을 나서다』는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야지 별 수 있나’라는 우리의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장애인 탈시설 운동가와 학자로 구성된 저자들은 시설의 기원과 역사·특징 등에 대한 연구, 이미 탈시설로 나아간 외국 사례, 탈시설에 품는 의문과 그에 대한 반론, 탈시설에 필요한 정책 대안 등 탈시설 담론 전반을 두루 다룹니다. 자기 삶과 존재로 탈시설이 왜 필요한지를 증명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탈시설이 그저 이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오래전에 시작돼 대안과 성과까지 나온 ‘현실적인 이야기’임을 입증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 시설을 나서다』는 탈시설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이미 만들어온 미래, ‘시설 너머 세계의 소식’을 섬세하게 포착한 기록입니다. 탈시설 당사자들의 과거와 현재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유승하 만화가, 황인혜 작가의 그림은 시설의 실상과 탈시설 이후의 삶을 시각적으로도 잘 전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강남규 강문민서 강서정 강신경 강영숙 강용주 강은영 강은옥 강창욱 강형철 고동민 고민경 고제영
곽경란 구미성 구민채 구종우 구혜임 권지윤 김경달 김경순 김경아 김경훈 김권호 김규태 김남섭
김동민 김민희 김병선 김상범 김상훈 김선정 김성숙 김성일 김소연 김수지 김순영 김시현 김애상
김영희 김용규 김원영 김유심 김은영 김응수 김이슬 김재명 김정우 김정인 김정현 김종규 김주영
김준성 김지순 김지은 김진용 김충례 김평호 김학주 김한수 김현무 김현정 김환균 김효정 나백주
나원돈 노복미 류혜정 명지원 모재연 문장렬 민원식 박경미 박계용 박근홍 박노성 박미옥 박보경
박선이 박소희 박수빈 박수희 박영란 박옥희 박유리 박윤주 박장락 박정남 박종수 박주홍 박중석
박철홍 박현진 박형주 배소영 배진환 법무법인[유] 지평 서나경 서민아 서예령 설정희 손현주 손현철
송소연 송재혁 송지완 신경구 신동규 신동호 신진숙 심찬섭 안경호 안금자 안명옥 안홍윤 양경희
양남훈 염은진 오용관 오현석 우한철 위정미 유재우 유창진 유현미 윤양희 윤여정 윤택진 윤혜영
이근행 이미정 이병남 이선화 이성엽 이옥 이용현 이윤정 이은숙 이은애 이자영 이재범 이정미 이진
이채훈 이춘희 이한솔 이해림 이현주 이해영 이해은 이효림 이희정 임순영 임인자 임혜영 장영아
장윤정 장은교 전원현 정길동 정길화 정남림 정대하 정미란 정미연 정범진 정봉숙 정유진 정윤하
정의로 정재홍 정중호 정주환 정혜경 정희선 조동찬 조미영 조미진 조은희 조일준 조정에 채수미
채옥희 채환규 최득록 최보람 최성진 최세정 최승남 최승진 최승진 최영아 최은아 최정식 최진민
최진숙 하인숙 하지훈 한송희 한정열 한지연 한진영 허연숙 홍순성 홍지연 홍진아 황순규